

2) 순천청년동맹

(1) 결성과정과 조직구성

전남의 군단위 청년동맹(이하 청맹으로 약칭)은 1927년 8월에 조직되기 시작하였다.¹⁾ 이는 1927년 7월 전남도당대회에서 공청사업으로서 청년동맹을 각 군에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다. 완도, 목포에 이어 순천에서도 청맹이 결성되었다.

1927년 10월 중순 순천청년연맹에서는 연맹체를 해체하고 순천청맹을 창립하였다. 1926년 여름의 조공탄압사건 이래 침체상태에 빠져 있던 순천 사회운동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당일 논의된 주요 의제는 첫째 조직 및 교양에 관한 건, 둘째 연령 제한의 건, 셋째 전 민족적 단일당 결성 촉진의 건, 넷째 지방열(地方熱) 박멸의 건 등이었다. 강령도 발표되었는데 아마도 청총의 신강령을 채택하였을 것이다. 청총의 신강령과 20개 조 정책은 통일된 지도 노선으로서 대부분의 청맹에서 그대로 채택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1927년 8월 청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령 제한선을 만 27세로 하향 결정하였는데, 순천청맹에서도 그것을 따랐는지, 아니면 종래처럼 30세 제한선을 고수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창립 초기의 주요 간부는 집행위원장 김광수(金光洙)를 비롯하여 고태우(高泰佑), 박영진, 이영춘, 한규성(韓圭星), 한태선, 황봉식(黃奉植) 등이었다. 김광수는 1903년경 출생하여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후 교사를 지낸 인물로서, 1923년 순천연합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영춘은 순천청년회·순천청년연맹 간부, 순천노동학원 학무위원을 지냈다. 한규성은 1901년경 구례에서 출생하여 목공생활을 하였다. 1921년 1월 임시정부 자금모집원으로 활동하다가 검거된 경력의 소지자로서 기독교면려청년회, 순천노동연합회에서 활동하였다. 청맹 이전의 활동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황봉식을 제외한 전원은 순천면의 활동가였다. 순천면 소재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순천청년연맹의 한계가 순천청맹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종교청년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면려청년회 등은 독자적인 조직체를 계속 유지하였다. 순천청맹이 창립되던 무렵 김광수와 한규성은 공청에 가입하였다. 12월에는 그뒤를 이어 한태선이 공청에 입회하였다. 김광수의 진술에 따르면, 한태선이 공청 전남책임자인 김재명과 연락선을 가지고 있었다.²⁾ 당시 공청은 표현운동(공개적 합법운동) 단체에 3명 이상의 공청원이 있을 경우 프락션을 조직하였다. 프락션은 공청의 정책과 영향력을 대중에게 미치도록 함과 동시에 표현운동 단체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프락션 회합에서는 표현운동 단체의 간부후보와 토의내용이 미리 결정되었다.³⁾

순천청맹에는 3명의 공청원이 있었으므로 프락션 조직의 조건은 갖추어진 상태였다. 순천청맹 안에 공청 프락션이 조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지도부가 공청원이었기 때문에 순천청맹에는 공청의 지도가 관철되고 있었을 것이다. 비단 순천만이 아니라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당원 혹은 공청원은 청맹 창립을 주도하고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순천청맹을 비롯하여 광주청맹(김재명), 목포청맹(김철진), 장성청맹(김인수), 영광청맹(조용남), 담양청맹(김덕선), 완도청맹(신광희) 등에서는 당원 혹은 공청원

1) 1927년 8월 완도청맹, 10월 목포·순천·장성청맹, 11월 함평·광주청맹, 12월 영광·나주·담양·강진·구례청맹, 1928년 1월 화순청맹, 9월 고흥청맹이 결성되었다.

2) 신주백, 앞의 논문, 150쪽.

3) 박철하,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과 활동(1920~1928)」,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140쪽.

이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27년 11월 11일 전청련 집행위원회는 한태선 등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청맹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단일동맹 설치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순회위원을 선정하여 지방상황 조사, 미가맹단체에 대한 가맹 권유, 세포단체 집행위원회 소집, 단체상황 조사, 조직체 변경, 문서 검사 등에 착수하였다. 한태선은 순천·광양·여수의 순회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전청련은 지방 청년운동을 진흥시키고 신운동방침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대회를 소집하였다. 개최지는 순천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전달받은 순천청맹은 지방대회 개최의 의의를 선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부 6군의 청년단체에 집행위원을 파견하였다.

11월 30일 순천노동연합회관에서 전청련 지방대회가 개최되었다. 순천지방대회는 동부청년연맹 산하 12단체 대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명의 세계정세와 조선정세에 관한 일반보고, 동부청년연맹의 해체 선언, 송언필(宋彦弼:청충 특파원)의 방향전환과 당면임무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통과된 주요 안건은 청년운동의 방향전환과 당면임무 및 정책, 조직문제, 교양문제, 전민족적 단일당 결성의 촉진, 신간회 지지, 『태중신문』 지지, 파벌 청산, 사상단체 해체 권고, 청충 집회 해금에 관한 건 등이었다. 이는 11월 26일 광주청맹 창립대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거의 동일하다. 광주청맹 창립과 순천지방대회를 주도한 것은 바로 당원과 공청원들(합법적 신분은 전청련 집행위원)이었으므로 안건이 유사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⁴⁾

순천청맹의 활동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청맹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⁵⁾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직 문제: 파벌(派別), 직업별, 산업별, 성별, 계급별, 신(信)·불신별(不信別) 모든 분파적 청년운동을 통일하여 노동·농민청년을 지도세력으로 한 전국적 단일청년단체의 완성을 기할 것
- 교양 문제: 과학적 이론을 선명히 하고, 일반 대중청년의 의식을 양양시키며, 미조직 청년대중의 문맹퇴치를 기할 것
- 신간회문제: 전민족적 단일당의 과도적 임무를 지고 나온 신간회를 지지하여 민족단일당의 완성을 기할 것.

순천지방대회 안건에 보이는 『태중신문』은 일월회(재동경 사상단체) 출신들이 동경에서 발간하던 신문인데, 1928년 2월 당과 공청의 공동 기관지로 승인되었다. 안광천을 비롯한 일월회 간부들은 1926년 말 조공에 입당하여 당 중앙을 장악했다. '태중신문' 지지' 슬로건은 당면 이론정세에서 일월회 출신 당 간부의 이론, 특히 1927년 11월 안광천이 주장하여 사회운동계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신간회의 해계모니 전취론'을 지지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당의 안팎에서 고조되고 있던 이론투쟁과 분파투쟁의 주요 경계선이었다. 순천지방대회는 '태중신문' 지지'를 천명함으로써 조공의 지도를 승인하였다. 한편 순천청맹은 당일 밤 순천노동학원에서 지방대회기념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28년 4월 14일 순천청맹은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한규성이 사회를 보고 박영진이 세계정세와 일본의 국정을 보고하였다. 이날 선출된 간부진은 집행위원장 윤귀중, 집행위원 한규성·고은·조남이(趙南伊)·고태우·강기반·나정오(羅正午) 등이었다. 강기반은 순천노

4) 광주청맹 창립과정에 대해서는 이애숙, 앞의 논문, 262~264쪽.

5) 『중외일보』 1927.11.29·『동아일보』 1927.11.30.

동청년회, 윤귀중은 순천청년회, 조남이는 순천여자청년회 출신이었다. 고태우는 1928년 6월 11일 전청련 임시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교양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여름 제4차 조공탄압사건이 터지면서 김광수, 한규성, 한태선 등이 검거되었고 전청련 관계자 대다수도 체포되었다. 이로써 순천을 비롯하여 전남의 청년운동계, 사회운동계는 제차 심대한 타격을 입고 한동안 휘청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들의 체포와 엇갈리면서 제2차 조공탄압사건(1926년 여름) 관계자들이 출옥하기 시작했다. 8월에는 이창수와 박병두, 10월에는 허영수와 김완근·정순화 등 광양 활동가, 12월에는 이영민, 1929년 1월에는 정순제가 연이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만기 출옥하였다. 일본의 체포망을 돌파하여 만주로 망명한 김기수만 돌아올 수 없었다. 이들 제1세대 활동가들이 운동전선에 복귀하면서 순천의 사회운동은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1929년 4월 순천농민연합회는 순천농민조합으로 조직체를 변경하고 각 면농민회를 토대로 지부를 결성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박병두는 순천농민조합의 집행위원장으로, 이영민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창수는 여수, 정순화는 하동으로 활동의 장을 옮겼다.

제4차 조공탄압사건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전청련은 1929년 6월 10일, 1년여 만에 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원을 보선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다. 9월 10일에는 전청련 제2회 정기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참석한 세포단체 대의원은 51명이었다. 순천청맹의 한규성은 집행위원 후보로 선출되었다. 9월 13일에는 순천청맹 정기대회가 개최되어 정령(鄭頌) 등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1929년 11월에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집회가 금지되고 특히 청년운동권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가 집중됨으로써 순천청맹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1930년 5월 22일 순천청맹은 경성에서 개최될 '전조선 군·부청년동맹 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제4회 정기대회를 소집하였다.⁶⁾ 임시집행부로서 의장 정령, 서기 최병채(崔炳彩), 사찰 김종석(金鍾錫)이 선출되어 회의를 이끌어나갔다. 그간 청년운동계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해온 박영진 등 4명은 연령 초과로 부득이 퇴맹하게 되었는데, 그들에 대해 만세삼창으로 송별하였다.

이날 새로 구성된 간부진은 집행위원장 허규(許奎), 부서별 집행위원으로 서무재정부 이용현(李龍顯)·김종석, 선전조직부 김기동(金基東)·김윤학(金允學), 소년여자체육부 이경훈(李景薰)·이세호(李世鎬), 집행위원 후보 송삼섭(宋三燮)·이종익(李淙益)·손애라(孫愛羅), 감사위원 정령 등이었다. 청총 전국대회에 출석할 대의원으로는 허규·김기동과 정령(후보), 전남도련 대의원으로는 이경훈·김기동이 선정되었다.

6) '전조선 군·부청년동맹 대표자대회'의 소집 경과에 대해서는 이애숙,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370쪽 참조.